

## 『자류주석(字類註釋)』 어별류(魚鱗類)에 나타나는 어류(魚類) 어휘장 연구

곽현숙\*

### 【목 차】

1. 들어가기
2. 『자류주석』 어별류 한자 훈의 의미 분류 항목
3. 『자류주석』 어별류 어류 의미 분류 및 특징
4. 『자류주석』 어별류 어류 어휘 고찰
5. 나오기

### 【초록】

본고에서는 『자류주석』 어별류에 나타나는 어류 명칭에 대한 한자학적 접근으로 먼저 『자류주석』에 나타나는 다양한 어류가 어떠한 의미 기준으로 분류·수록하였는지 살펴보고, 『자류주석』의 한문 주석을 통해 어류의 종류 및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자류주석』 한문 주석만으로 어류의 종류와 특징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 『우해이어보』·『자산어보』·『난호어목지』 등의 문헌 자료를 참고하여 어류의 속성을 파악하여 각 어류가 지니는 다양한 명칭 및 이름의 어원 등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였다.

『자류주석』 어별류에 나타나는 어종은 ‘슈어’, ‘방어’, ‘련어’, ‘청어’, ‘부어’ 등으로 44종이다. 이러한 어종의 명칭은 대부분 ‘-어’계의 어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치’계는 ‘준치’로 하나 밖에 없다. 그리고 ‘쏘가리’, ‘썩적이’, ‘모리물이’, ‘딴구’, ‘가물티’ 등은 기타 어휘 구조도 12개 존재한다. 그리고 『자류주석』 어류 명칭은 ‘鰯’, ‘鰱’, ‘鱖’ 등 한자어 어류 명칭이 많았고, 참조한 문헌에서 한글 또는 다른 한자어로 사용되는 이명(異名), 별명(別名), 속명(俗名) 등의 다양한 어류 명칭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표준어형을 바탕으로 지역에 따른 다양한 방언형이 나타나며, 색깔, 모양, 크기, 맛과 질, 서식지, 습성, 촉감,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명명 어휘가 발달해 있었다. 그리고 이 중에는 『표준국어대사전』이나 19세기 어류 총서인 『우해이

\* 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강사 (yellow1331@hanmail.net)

어보』·『자산어보』·『난호어목지』에 수록되지 않은 어종도 있었으며, 이후 잡지나 신문에 게재된 기사 내용을 통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어종도 있었다. 이처럼 바다 생물어 중 어류 명칭 어휘의 목록체계화 작업은 우리말의 어휘장을 풍부하게 해주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키워드】 자류주석, 어류, 우해이어보, 자산어보, 난호어목지.

## 1. 들어가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수렵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바다를 접한 오랜 세월만큼이나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관한 다양한 어휘도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해와 서해, 남해의 수온과 바다 및 민물의 서식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환경에 맞게 다양한 수산물의 종류가 서식하고 있고, 계절마다 다양한 수산물이 잡혔다. 따라서 다양한 수산물의 종류만큼이나 그에 따른 이름 및 관련 어휘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우리바다에서 생산되는 생물 중 어류는 대략 950여 종류가 있다.

이러한 어류의 연구는 수산물의 생리나 생태 분포 등을 다루는 어류학 나아가서는 생물학과 같은 자연과학 영역에 속하지만 여러 가지 물고기의 명칭어 연구는 국어학과 한자학 영역 등의 연구 대상이 된다. 특히 어류 명칭어 중 한자어로 된 명칭은 물고기의 생김새나 특징, 그리고 한자의 자원(字源)에서 다양한 물고기 이름의 어원 및 어류 명칭어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학계에서 어류의 명칭어나 관련 어휘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편찬된 『자류주석』에 나타나는 어류의 종류와 생산성을 파악하여 19세기 우리나라에 사용된 어류의 명칭을 정리하고 각 어류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바탕으로 어류 명칭의 근원 및 어휘 의미 분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자류주석』 표제어가 된 어류가 현재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등을 설명하고 아직 물고기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던 어종도 기존 자료와 대조해 가능한 우리 어명을 확인하여 우리 수산물의 가치를 재조명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비록 연구 대상으로 삼은 물고기의 종류와 어휘 수가 한정되어 있지만 조선시대 편찬된 『자류주석』의 자서가 조선시대 전후의 어휘 변천 역사에 징검다리 역할로서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자류주석』 어류 명칭어의 연구는 충분히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

## 2. 『자류주석』 어별류 한자 훈의 의미 분류 항목

『자류주석』에 나타난 어류는 모두 ‘물류부·어별류’에 수록되어 있다. 『자류주석』에 나오는 10,970자의 한자는 상권에 3부의 6,193자, 하권 2부의 4,777자로 상·하권에 각각 수록되어 있

번호	상위표제항	수록자	수량	세부 의미 분류
1	魚(고기)	鰵(싱선)	2	어류 명칭어의 총칭
2	龍(룡)	龍(민우), 攏(옥룡), 龕(룡등썰), 虵(규룡), 蛟(교룡), 螭(치룡), 蟠(설일), 蜿(트러덜), 蚺(곰틀거릴), 蟒(곰틀거리), 虺(트러덜), 躩(곰틀거릴), 踞(곰틀거리)	14	용의 종류
3	鮫(교인)	魷(인어)	2	교인
4	鯨(고리)	鯢(고리), 鰭(히쭈), 鯢(곤어), 鰭(악어), 鰭(문어), 鰭(심어)	7	어류(1)
5	鯉(리어)	鰕(리어), 鯢(리어), 鰕(준어), 鰕(슈어), 鰕(도어), 鰕(방어), 鰕(방어), 鰕(방어), 鰕(방어), 鰕(련어), 鰕(련어), 鰕(련어), 鰕(준치), 鰕(조그), 鰕(황석어), 鰕(청어)	17	어류(2)
6	鯽(부어)	鰕(부어), 鰕(부어), 鰕(위어), 鰕(위어), 鰕(위어), 鰕(위어), 鰕(복싱선), 鰕(복), 鰕(복), 鰕(복), 鰕(복), 鰕(복), 鰕(쏘가리), 鰕(색적어), 鰕(모리문어), 鰕(모리문어)	17	어류(3)
7	鮎(머여기)	鰕(오머여기), 鰕(오머여기), 鰕(오머여기), 鰕(언어), 鰕(민어), 鰕(디구)	7	어류(4)
8	鰕(가물티)	鰕(가물티), 鰕(가물티), 鰕(가물티), 鰕(비암장)	8	어류(5)

1) 하영삼·곽현숙 표점교감 『자류주석』, 도서출판3, 2017.

		어, 鰐(비암장어), 鰐(드렁허리), 鰐(미씨리)		
9	鰐(비목어)	鰐(비목어), 鰐(비목어), 鰐(비목어), 鰐(전어), 鰐(황어), 鰐(유어), 鰐(금어), 鰐(심어), 鰐(루어), 鰐(전어), 鰐(황상어), 鰐(작어), 鰐(절어), 鰐(빅어), 鰐(양고), 鰐(첩어), 鰐(제어), 鰐(병어), 鰐(공지), 鰐(홍어)	21	어류(6)
10	鰐(오징어)	鰐(장어)	2	연체동물
11	鰐(쇼천어)	鰐(조고기), 鰐(송소리), 鰐(고기삭기), 鰐(고기삭기), 鰐(고기삭기)	6	어류(7)
12	鰐(비늘)	鰐(비늘), 鰐(아감이), 鰐(아감이), 鰐(고기먹을), 鰐(자감이), 鰐(등딘염이), 鰐(가식), 鰐(고기소리), 鰐(소리틸), 鰐(어장), 鰐(부레), 鰐(부레)	13	어류의 하부 속성
13	鰐(시우)	鰐(시우), 鰐(디하)	3	갑각류(1)
14	鰐(거북)	鰐(령귀), 鰐(거북), 鰐(귀갑선), 鰐(귀갑선), 鰐(자라), 鰐(자라), 鰐(자라), 鰐(자라), 鰐(타충), 鰐(비희), 鰐(당홀), 鰐(비희)	13	파충류
15	鰐(게)	鰐(게), 鰐(큰게), 鰐(큰게), 鰐(게), 鰐(게), 鰐(게), 鰐(곤게), 鰐(방게), 鰐(방게), 鰐(방게), 鰐(방게), 鰐(열두볼게)	12	갑각류(2)
16	鰐(디합)	鰐(디합), 鰐(조기), 鰐(조기), 鰐(조기), 鰐(물조기), 鰐(물조기), 鰐(조기), 鰐(조기), 鰐(조기), 鰐(조기), 鰐(강요주)	13	패류(1)
17	鰐(소라)	鰐(소라), 鰐(우렁이), 鰐(소라), 鰐(굴), 鰐(굴), 鰐(가리마), 鰐(돌핑이), 鰐(돌핑이)	9	패류(2)
18	鰐(자기)	鰐(자기), 鰐(싱복), 鰐(엷딜)	4	패류(3)
총계			180	

『자류주석』 어별류에는 180개 표제자를 어류, 조개류, 갑각류, 패류 등의 수산물 관련 어휘장으로 구성되는데 어휘장의 의미 항목을 18개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18개의 의미 항목 중 어류(1)~어류(7)은 큰 범위의 ‘어류’로 통합할 수 있고, 갑각류(1)(2), 패류(1)(2)(3) 역시 하나의 큰 범위로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다시 크게 9개로 나누어 분류된다. 즉, 어류 명칭어의 총칭, 용의 종류, 교인,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파충류, 어류의 하부 속성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 3. 『자류주석』 어별류 어류의 종류 및 특징

어류는 일반적으로 바다나, 강, 하천 등의 분포지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생활습성이나 개별적 생김새의 특징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명칭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명칭은 각각의 어류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명칭을 통해 어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류주석』 어별류에 나타나는 어류의 한문 주석을 바탕으로 물고기의 종류와 그 특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류주석』 한문 주석에 나타나지 않은 어류의 특징 및 어류 명칭 관련 내용은 주로 김려(金鑣)의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 (1803)<sup>2)</sup>와 정약전(丁若銓)의 『자산어보(茲山魚譜)』 (1814)<sup>3)</sup>·사유구(徐有榘)의 『난호어목지(蘭湖漁牧地)』 (1820)<sup>4)</sup>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자류주석』 어별류에 나타나는 어류는 다음과 같다.

번호	수록자	『자류주석』 한문 주석
1	鯨*5)	고리【경】鯨全。海中大魚，大者千里，小者數十丈。
	鯢	고리【예】雄曰鯢，雌曰鯢。又曰：刺魚，四脚。又曰：鯢魚，名王鮪，鰻魚。
	鰩	히쭈【쭈】鰩全。海魚，長數千里，入穴則海爲潮，出則潮退。又미기리【쭈】泥鰩，鰩也，似鰩，穴泥中。
	鯢	곤어【곤】北溟大魚。又魚子，鯢鰩。
	鰐	악어【악】鰐全。虎爪，鰐鱗，尾長，芒刺成鉤，人畜近則以尾擊取。
	鰩	문어【요】文魚身鳥翼，羣飛海上，有大風，名飛魚。
	鰩	심어【심】背如龍，長一二丈。
2	鯉*	리어【리】三十六鱗魚，能神變，多爲龍，有赤黃白三種。
	鯉	리어【흔】鯉也，唐諱李。鯉全。音號爲赤鯉公。
	鯢	【흔】全鯉。又【한】似鯢而大。又曰：似鯉，膽至苦。
	鰩	준어【준】大魚，赤目魚，似鯉。
	鰩	슈어【치】似鯉，身圓，頭扁，骨軟。
	鰩	도어【도】白鰩，形狹而長，若條然。或作條、鰩。按：或謂슈어而未詳。
	魴	방어【방】魴全。鰩魚。一名魴魚之美者，小頭，縮項，潤腹，細鱗，勞則尾赤。
	鰩	방어【편】鰩全。魴魚也，一曰魴類。
	魴	방어【비】魴也。又曰：大鰩，似魴，小者名魴。又曰：白魚，雄者曰魴。
	鯉	방어【경】魴，一名鯉。
	鰩	련어【련】鰩也，呼爲鰩。
	鰩	련어【서】頭尤大而肥者謂鰩。或謂鰩。一曰似魴，不美。
	鰩	련어【용】鰩，或作鰩。一曰似鰩而黑。鰩全。

- 2) 우리나라 최초의 어보로, 수산 연구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는 연구서이다. 우해(牛海)는 진해의 별명으로, 이 책은 저자가 진해에 유배되어 있을 때 저술한 것이다. 이 책은 주로 수산동물을 나열한 것인데, 방어·꽁치 등 어류 53종(연체동물 포함)과 갑각류 8종, 패류 10여 종 등이 소개되어 있고, 어종별로는 그 근연종(近緣種: 가까운 종류)으로 생각되는 것을 첨가하여 설명한 것이 많다.
- 3) 저자가 귀양을 가 있던 흑산도 연해의 어류를 취급했다. 총3권으로 구성된 『자산어보』는 제1권 인류(鱗類), 제2권 무인류(無鱗類) 및 개류(介類), 제3권 잡류(雜類)로 되어 있다. 각종 이명(里名)·형태·습성·맛·이용법·어구·어법 등이 다루어져 있다. 그리고 『우해이어보』와는 달리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헌을 많이 참고하고 이를 인용하고 있다.
- 4) 어류학(魚類學)에 관한 기술서. 서술방식은 물고기의 이름을 한자와 한글로 각각 적은 뒤 그 모양과 형태·크기·생태·습성·가공법·식미(食味)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후일 사유구가 저술한 『임원경제지』의 전어지(佃漁志)에 대부분 인용되었다.

	鮓	준치【시】鮓全。美魚，似魴，多鯁。
	鰕	조그【종】頭中有石，名石首魚。一曰似鰕，微黃，好噉魚，非石首。
	鮓	황석어【모】鮓全。似鰕而小，名黃花魚，首亦有石。
	鯖	청어【청】青色，有枕骨。又全脰，【정】煮魚煎肉。
3	鯽★	부어【적】正【즉】鯖全。似鯽，色黑，體促，脊隆。
	鮓	부어【부】鮓也，鯖也，魚之小者，好旅行。
	鯖	부어【적】鮓也，一曰紫貝小者。
	鯈	위어【제】刀魚，頭長狹薄如刀，飲而不食。又名鱮魚，又鯖魚。
	魴	위어【도】鯈魴。魴，今鯈魚，刀魚形似刀。本作刀，改作魴。
	鯈	위어【렐】魴全。刀魚，今鯈魚。
	鯈	위어【멸】鯈刀，鯈魚。
	鮠	복싱선【돈】河鮠，又河豚，狀如蝌蚪，無鱗腮，大者尺餘，目能睇者，目出有毒。又名鮠鮠，鮠鮠，健魚。
	鮠	복【호】河豚。又名噴魚。
	鮠	복【후】鮠鮠，河豚。一曰鮠鮠魚。又曰：鮠也。
	鮠	복【타】河豚別名，背上青黑有黃文。老人消瘠，背若鮠魚，有鮠文。
	鮠	복【규】河豚，鮠鮠。又魚菜總名。
	鮠	복【포】鮠全。江豚別名，尾毒。
	鮠	쏘가리【귀】又【귀】大口，細鱗，斑采，一名水豚。又婢魚。
	鮠	색적어【로】四腮魚，巨口，細鱗，似鮠，長數寸。
	鯈	모리몬이【사】鮠、鮠、鯈全。吹沙小魚。又名鮠，黃皮，黑斑。又상어【사】海鯈，鮠也。皮如沙，可飾刀，無鱗，胎生。
	鮠	모리몬이【타】吹沙小魚別名。又鮠魚，似守宮而大，丈餘，有鱗甲。
4	鮠★	머여기【덤】鯈也。背青，口小者，鮠。身滑，頭大，無鱗，黏滑。
	鯈	오머여기【데】大鮠，重千斤。鯈冠，以皮爲冠。
	鯈	【데】全鯈。又【이】鯈鮠，鹽咸魚腸。
	鯈	오머여기【화】似鮠而大，白色。又鮠。口腹俱大者名鯈。又音【호】、【획】
	鯈	언어【언】身圓，額白，好偃腹著地。『字典』謂以鯈爲鮠，非。메기
	鮠	민어【면】石首魚，一名鮠。扁身，弱骨，頭中白石二，腹內鰾可作膠，乾者鯈魚。
	吳	딕구【화】魚之大口者。又大口，大聲也。按：『醫鑑』作吞魚，而『字典』作吳，無吞。
5	鯈★	가물티【레】鯈全。鯈也，黑鯈，烏魚，斑點有七，作北斗。
	鯈	가물티【동】鯈全。鯈也。大者名鯈，小者鯈。
	鯈	가물티【견】鯈大者鯈，或曰강고도리。
	鯈	가물티【탈】鯈小者鯈。又呼小鯈爲鯈。
	鯈	비암장어【만】鯈鯈，似鯈而腹大。又曰：鯈魚。
	鯈	비암장어【리】鯈全。鯈鯈，似蛇，無鱗甲。又曰：鯈全。小鯈。
	鯈	드렁허리【선】鯈俗。蛇鯈，似蛇。又【타】鯈鯈皮可冒鼓。
	鯈	미시리【습】泥鯈，穴於泥中，有漿，濡滑。又鰕鰕之魚，如鵠，十翼，鱗在羽端。
6	鯈★	비목어【덥】又【탐】比目魚，狀似牛，脾紫黑，一目兩片相得乃得行。又呼王餘魚，出

		東方樂浪。按：東方謂鰓域，而今北路有魚俗呼가즈미，兩目相比而近，故俗稱比目魚，遂謂鰓魚。然比目魚本是一目兩得乃行，則此有不全。
	魴	비목어【개】比目魚。
	鰓	비목어【검】比目魚，一曰鰓也。魚名，大而青。
	魴	비목어【허】比目魚。亦作魴，亦作鰓。又魚名，如牛，有羽在脅下。
	鰓	전어【전】口在額下，甲無鱗，肉黃，呼黃魚。又曰：鯉類，似龍。又音【단】
	鰓	황어【황】鰓全。鰓也。
	鮪	유어【유】似鰓而青，黑頭，尖鰓也。大者王鮪，小者鮪鮪。
	鮪	궁어【궁】鮪全。鰓鮪也，三月遡河上能度龍門則爲龍。
	鰓	심어【심】長鼻魚，口在額下，大者七八尺。又曰：鮪也。
	鰓	루어【루】大青魚，一名鯉，一名鰓。
	鰓	전어【전】魚之美者大者。又黑水鰓，如鮪，彘尾，見則天下旱。又勇士，鰓設諸。
	鰓	황상어【상】黃鰓魚，鰓骨黃，名黃鰓魚，大而有力解飛謂揚黃。
	鰓	작어【작】鰓魚皮，即鰓魚皮。
	鰓	절어【절】鰓鼠所化。
	鮪	빅어【빅】鰓也。又【파】
	鰓	양교【교】陽鰓，白魚別名，肉薄而不美。
	鰓	첩어【첩】妾魚，其行以三爲率，一前二後若婢妾。
	鰓	제어【제】鰓全。美味在額，可爲醬。
	鰓	병어【창】似鰓，身圓肉厚，止一脊骨，炙可食。
	鰓	공지【침】俗呼針鰓魚。
	鰓	홍어【분】形如大荷葉，口在腹下，目在額上，尾長有節，螫人。
7	鰓★	쇼천어【쑤】雜小魚。又鰓生，小人。
	鰓	죵고기【쑤】小魚。又도어【도】白鰓魚長而小，好游魚。
	鰓	송스리【승】小魚，魚子未成者。
	鰓	고기샅기【이】鰓鮪，魚子未成魚。
	鰓	고기샅기【타】鰓全。魚子也。
	鰓	고기샅기【공】魚子，鰓也。又曰：鰓子。按：『醫鑑』註가오리，『字典』未見。

『자류주석』 어별류에 나타나는 어류에 해당하는 표제자는 총 83개로 전체 83%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턱이 있느냐 없느냐, 비늘의 유무, 서식지 등으로 무리를 나눌 수 있는데<sup>6)</sup> 『자류주석』 어별류의 어류는 생김새와 서식지에 따라 분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류주석』 어류는 7가지로 분류되는데, 상위 표제항의 한자 훈을 따라 나열하면 ‘고리과’, ‘리어과’, ‘부어과’, ‘머여기과’, ‘가물티과’, ‘비목어과’, ‘쇼천어과’이다.

먼저 ‘고리과’에는 속하는 표제자는 ‘鯨’, ‘鰩’, ‘鯢’, ‘鰻’, ‘鰻’, ‘鰻’등으로 ‘고리’, ‘히쑤/미기리’, ‘곤어’, ‘악어’, ‘문어’, ‘심어’ 등의 의미로 각각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고리과’에 속해 있는

5) ★: 『자류주석』 어별류 어휘장을 구성하는 어휘 항목 중 ‘상위 표제항’에 해당하는 표제자를 표시 한 것이다.

6) 손민호, 『우리바다 해양생물 갯벌에서 심해까지』, 아카데미서적, 2015.

표제자 및 그 의미를 살펴보면 바다 생물이긴 하나 ‘鯢’, ‘鰻’, ‘鰻’만 어류에 포함되고 하나의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고리과’에서는 어류에 포함되는 ‘鯢’, ‘鰻’, ‘鰻’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鯢’은 ‘鰻魚’로 ‘상상 속의 큰 물고기’를 말하고 ‘鰻’은 ‘날치’, ‘鰻’은 ‘철갑상어’이다.

그리고 ‘리어과’에 속하는 표제자는 ‘鯉’, ‘鰻’, ‘鰻’, ‘鰻’, ‘鰻’, ‘鰻’ 등으로 ‘리어’, ‘준어’, ‘슈어’, ‘방어’, ‘준척’, ‘조괴’, ‘황석어’, ‘청어’ 등의 의미로 각각 나타나는데, 리어과의 ‘리어’는 우리말의 옛말로 지금의 ‘잉어’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과에 속하는 물고기들이 모두 ‘잉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김새나 속성이 잉어와 비슷하여 같은 부류 분류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鯉’, ‘鰻’, ‘鰻’은 물고기의 한 종류인 ‘잉어’를 지칭한다. 그러나 ‘鰻’, ‘鰻’, ‘鰻’, ‘鰻’, ‘鰻’ 등은 다른 종류의 물고기를 말한다. 하지만 『자류주석』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鰻(似鰻.)’, ‘鰻(似鯉, 身圓, 頭扁, 骨軟.)’으로 잉어와 생김새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김새에 따라 물고기를 분류 한 뒤 다시 물고기의 서식지에 따라 표제자를 분류나열하고 있다. 예를 들어 ‘鯉’에서 ‘鰻’, ‘鰻’, ‘鰻’, ‘鰻’, ‘鰻’의 물고기는 서식지가 강이고, ‘鰻’, ‘鰻’, ‘鰻’, ‘鰻’, ‘鰻’, ‘鰻’, ‘鰻’, ‘鰻’의 물고기는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어(海魚)에 속해 있는 표제자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鰻(鰻魚, 一名鰻魚之美者, 小頭, 縮項, 潤腹, 細鱗, 勞則尾赤.)’, ‘鰻(鰻魚也, 一曰鰻類.)’, ‘鰻(鰻也.)’, ‘鰻(鰻, 一名鰻.)’, ‘鰻(似鰻.)’ 등으로 모두 ‘방어’ 또는 그 생김새가 방어의 형상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제자의 분류 나열법은 뒤에 나타나는 ‘부어과’, ‘머여기과’, ‘가물티과’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부어과’에 속하는 표제자를 살펴보면, ‘鰻’, ‘鰻’, ‘鰻’, ‘鰻’, ‘鰻’ 등으로 ‘부어’, ‘위어’, ‘복싱선’, ‘쏘가리’, ‘썩적이’, ‘모리물이’ 등의 의미로 각각 나타난다. 강가에 서식하고 있는 ‘鰻’, ‘鰻’, ‘鰻’, ‘鰻’, ‘鰻’, ‘鰻’, ‘鰻’은 ‘붕어’와 ‘웅어’의 물고기 형상과 비슷하고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鰻’, ‘鰻’, ‘鰻’, ‘鰻’, ‘鰻’, ‘鰻’, ‘鰻’은 그 생김새가 ‘복어’와 비슷하게 닮았다.

또 ‘머여기과’에 속하는 표제자는 ‘鰻’, ‘鰻’, ‘鰻’, ‘鰻’, ‘鰻’ 등으로 ‘머여기’, ‘오머여기’, ‘언어’, ‘민어’, ‘더구’ 등의 의미로 각각 나타나는데, ‘머여기(鰻)’, ‘오머여기(鰻)’, ‘언어(鰻)’는 모두 ‘메기’를 말한다. 메기는 강에 서식하는 강어(江魚)에 속하고, ‘민어(鰻)’, ‘더구(鰻)’는 바다에 서식하는 해어이다. 그리고 머여기과에 속하는 ‘메기’, ‘민어’, ‘대구’ 이들 생김새의 공통점은 모두 입이 크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물티과’에 속하는 표제자를 살펴보면, ‘鰻’, ‘鰻’, ‘鰻’, ‘鰻’ 등으로 ‘가물티’, ‘비암장어’, ‘드렁허리’, ‘미끼리’ 등의 의미로 각각 나타난다. 이 어류들의 형상은 뱀을 닮았고, 뱀처럼 기는 습성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모두 민물고기로 연못과 같이 바닥이 수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탁한 물이 고여 있는 곳에 많이 서식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비목어과’에 속하는 표제자는 ‘鰻’, ‘鰻’, ‘鰻’, ‘鰻’, ‘鰻’, ‘鰻’, ‘鰻’, ‘鰻’, ‘鰻’, ‘鰻’, ‘鰻’, ‘鰻’, ‘鰻’, ‘鰻’, ‘鰻’ 등으로 ‘비목어’, ‘전어’, ‘황어’, ‘유어’, ‘궁어’, ‘심어’, ‘루어’, ‘황상어’, ‘작어’, ‘절어’, ‘빅어’, ‘양교’, ‘첩어’, ‘제어’, ‘병어’, ‘공지’, ‘홍어’ 등의 의미로 다양한 어류가 나타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비목어과에 속한 물고기들이 모두 ‘비목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비목어과에 속해 있는 물고기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면 생김새가 비슷한 류의 물고기를 묶어서 나열하려고 했으나 앞의 ‘리어과’와 ‘부어과’에 귀속해도 가능한 물고기



의 종류도 몇 보인다. 게다가 비목어과 속해 있는 어류가 앞에 나타나던 다른 과의 어류보다 그 수량이 많고, 물고기의 서식지 또한 순서가 체계적이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정윤용이 『자류주석』을 편찬할 당시 다양한 어류를 최대한 담으려 시도하다가 뒤늦게 발견된 어류에 대해 보완하다가 분류가 조금 뒤섞인 것 같다. 어쨌든 ‘비목어과’에는 다양한 어종이 보이는만큼 ‘鱻’와 ‘鱠’처럼 물고기의 생김새 중 주둥이의 형상이 비슷하여 함께 분류 나열된 것도 있다.

마지막으로 ‘쇼천어과’에 속하는 표제자는 ‘鰕’, ‘鰕’, ‘鰕’, ‘鰕’, ‘鰕’ 등으로 ‘쇼천어’, ‘잔고기’, ‘송스리’, ‘곤이’, ‘고기삭기’ 등의 의미로 각각 나타나는데 『자류주석』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鰕(雜小魚.)’, ‘鰕(小魚.)’, ‘鰕(小魚, 魚子未成者.)’, ‘鰕(鰕鰕, 魚子未成魚.)’ “鰕(魚子也)”으로 여기에선 특정한 물고기를 지칭하기 보단 크기가 작은 어종의 물고기를 분류해 놓은 것이다.

#### 4. 『자류주석』 어별류 어류 어휘 고찰

어류는 척추동물 중에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고 또한 이들에 대한 명칭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어학적, 한자학적인 연구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류 명칭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어휘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어류의 명칭 중 한자어로 된 것은 어류의 형태나 서식지 등 어원적 관련성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휘의 형태적 특성과 함께 어원적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자류주석』에 나타나는 어류의 서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에 사용되고 있었던 어류 명칭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자류주석』 어별류에 해당하는 표제자는 총 83개이나 어종 총 44류로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sup>7)</sup>

유형	어종	수량
‘-어’계	문어, 심어, 리어, 준어, 슈어, 도어, 방어, 련어, 황석어, 청어, 부어, 위어, 언어, 민어, 비암장어, 비목어, 전어, 황어, 유어, 금어, 심어, 루어, 전어, 황상어, 작어, 절어, 빅어, 첩어, 제어, 병어, 홍어	31
‘-치’계	준치	1
기타	조그, 복싱선, 쏘가리, 석적이, 모리물이, 머여기/오머여기, 디구, 가물티, 드렁허리, 미씨리, 양교, 공지	12
총계		44

##### 1) ‘-어(魚)’계

어류 명칭에 대부분 나타나는 어휘소는 ‘-어’와 ‘-치’ 등이 있다. 이들은 형태론적으로 의존

7) 총 83개 표제자 중 鰕, 鰕, 鰕 등은 어종이 아닌 관계로 분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한글표어가 동일한 것을 하나의 어종으로 판단하였다.

형식이나 ‘-어’와 ‘-치’ 만으로는 어류의 이름이 될 수 없고 반드시 그 앞에 선행 결합 성분이 있어야 어류의 이름으로서의 역할을 가진다. ‘-어(魚)’계에 있는 어류를 살펴보자.

(1) 문어(鰐): 『자류주석』 ‘鰐’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飛魚’라고 나온다. ‘문어’는 일명 ‘비어(飛魚)’라고 하는데 ‘날치’ 또는 ‘문요어(文鰐魚)’이다. 『산해경(山海經)』에서 이르는 바를 살펴보면 “관수 지역에서 서쪽으로 흘러 유사 지역으로 들어가는 물을 보면 그 가운데에 문요어가 많다. 모양은 잉어 같은데 몸뚱이에는 새의 날개가 있고 푸른 무늬에 머리는 회고 주둥이는 붉다. 서해에서 다니다가 동해에까지 놀란다. 밤이 되면 날아다니는데 그 소리가 난계와 같다. 그 맛은 시고 달아서 먹어보면 미칠 지경”이라 했다.<sup>8)</sup> 그리고 『여씨춘추(呂氏春秋)』에 이르기를 “관수의 물고기 중 이름이 ‘요(鰐)’라는 것이 있는데 모양은 잉어 같은 것이 날개가 있다”고 했다.<sup>9)</sup> 또 『본초습유(本草拾遺)』에도 “문요(文鰐)의 큰 것은 한 자 정도 되고 배지느러미와 꼬리가 같다. 가지런하게 무리를 지어 물 위로 날아다닌다”고 했다.<sup>10)</sup> 바닷사람들이 이것을 살피고는 큰 바람이 꼭 일어난다 하는데 모두가 이 ‘비어(飛魚)’인 ‘날치’를 가리킨 것이다.

(2) 심어(鰩): 『자류주석』 ‘鰩’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背如龍, 長一二丈’라고 하여 등이 용과 같고 길이가 긴 어류로 나온다. 표준국어대사전에 ‘鰩魚·鰩魚’라 하여 ‘철갑상어’로 나오는데, 철갑상어는 『자산어보』에 ‘충절압’이라 하였고 ‘금린사(錦鱗鯢)’라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재물보(才物譜)』에는 ‘전어(鱣魚)·황어(黃魚)·옥판어(玉版魚)’ 등으로 기록하였고,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홀어(忽魚)’라 기록하고 있다. 몸은 긴 원통 모양이고 주둥이가 길며 뾰족한 물고기 종류이다.

(3) 리어(鯉/鯽/鯢): 『동의보감』과 『재물보』에서는 ‘니어(鯉魚)’,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에서는 ‘리어(鯉魚)’라고 하였으며, 이 어류는 십자 무늬가 있기 때문에 이(理)에서 리(里)를 취해 어(魚)와 덧붙여 리(鯉)자를 만든 것이라 설명하는데 모두 ‘잉어’를 말한다. 그리고 『자류주석』 ‘鯉/鯽/鯢’의 한문 주석에서도 모두 ‘잉어’를 지칭한다.

(4) 준어(鱣): 『자류주석』 ‘鱣’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大魚, 赤目魚, 似鰩’라고 하여 ‘대어(大魚)’, ‘적목어(赤目魚)’인데 잉어와 생김새가 비슷한 어종이다. 『재물보』와 『물명고(物名攷)』에서 ‘백어(白魚)’라 하였고 바다에 사는 준치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소개되었다. 얇고 둥근 비늘이 기와모양으로 몸을 덮고 있고 배지느러미 부분부터 항문까지 칼날돌기가 솟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꼬리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는 분홍빛을 띤다. 보통 큰 강의 물살이 느린 곳, 또는 호수에서 살고 지형이 평탄한 곳을 좋아하여 ‘강준치’라고도 한다. 그리고 『난호어목지』에서는 강어에 속하는 것으로 ‘독너울이’를 가리킨다. 독너울이는 눈에 붉은 맥이 눈을 관통하고 있어 ‘적목어’라 칭하는 것이고, ‘눈붉게(눈 붉은 송어)’라고도 부른다.

(5) 슈어(鰻): 『자류주석』 ‘鰻’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似鯉, 身圓, 頭扁, 骨軟’라고 하여

8) 按山海經云觀水西流注于流沙其中多文鰐魚狀如鯉魚魚身而鳥翼蒼文而白首赤鰓常行西海游于東海以夜飛其音如喙雞其味酸甘食之已狂.

9) 呂氏春秋云霍水之魚名曰鰐其狀若鯉而有翼.

10) 本初拾遺云文鰐大者長尺許其翅與尾齊群飛水上人候之當有大風.

잉어와 유사하나 몸은 둥글고 머리는 납작한 경골어류이다. 『재물보』에서는 ‘치(鯢)’를 ‘송어’라 하였고,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에서는 “물고기의 몸이 치흑색이어서 ‘치’라고 명명하고 오(奧)나라 사람들은 그 새끼가 맛있고 예뻐서 ‘자어(子魚)’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그 모양이 장수(長壽)하므로 ‘수어(秀魚)’라고 부른다”고 하였다.<sup>11)</sup> 그리고 『자산어보』에는 ‘치어(鯢魚)’라 기재하고, 송어의 형태·생태·어획·이명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몸은 둥글고 검으며 눈이 작고 노란빛을 띤다. 성질이 의심이 많아 화를 피할 때 민첩하다. 작은 것을 속칭 ‘등기리(登其里)’라 하고 어린 것을 ‘모치(毛峙)’라고 한다. 맛이 좋아 물고기 중에서 제1이다.”라고 하였다.<sup>12)</sup>

(6) 도어(鱒): 『자류주석』 ‘鱒’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白鱒, 形狹而長, 若條然’라고 하여 ‘백조(白鱒)’를 가리키는데 몸이 가늘고 길며 가지런한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류이다. 『재물보』에는 ‘조어(鱒魚)’를 한글로 ‘필이미’라 하고, “강호(江湖) 중의 소어(小魚)이다. 길이는 겨우 수촌이며 모양은 버들잎 같다. 결백하고 사랑스럽다. 떼를 지어 회유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으며 그 별명으로 ‘백조(白鱒)·수어(鮒魚)’ 등을 들고 있다. 『난호어목지』에는 ‘鱒(조)’를 한글로 ‘참피리’라 하고 『재물보』와 유사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난호어목지』에서는 ‘비필어(飛畢魚)’를 ‘피라미’로 보았다. 그것을 한글로 ‘날피리’라 하고 일명 ‘필암이’라 하였다. 그 설명을 보면, “비늘은 백색이고 등은 검고 청색을 띠고 있다. 눈에는 붉은 점이 있다. 배는 조금 둥글고 꼬리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빨아서 언도(偃刀) 모양과 같다. 4개의 아가미가 턱 밑에 있고 2개의 지느러미가 등 위와 배 밑에 있다. 꼬리는 갈라져 제비 꼬지와 같다. 큰 것은 3~4촌이다. 일명 ‘필암어(畢巖魚)’이다.”라고 하였다.<sup>13)</sup> 이것은 ‘피라미’를 가리키는 것이다.

(7) 방어(魴/鰱/魷/鯉): 『자류주석』 ‘魴/鰱/魷/鯉’의 한문 주석에서 모두 ‘방어(魴魚/鰱魚)’를 지칭한다. 방어는 한자어로 방어(方魚·魴魚)라고도 한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각도의 주산 어류를 열거한 것이 있는데, 방어는 대구 및 연어와 함께 함경도·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물고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난호어목지』에서는 방어는 동해에서 나는데 관북·관동의 연해와 영남의 영덕·청하 이북에 모두 방어가 있다고 하고, 그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데 큰 것은 6, 7자에 달한다고 하였다.<sup>14)</sup>

(8) 연어(鰵/鰵): 『자류주석』 ‘鰵’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頭尤大而肥者謂鰵’라고 하여 머리가 특별히 크고 뚱뚱한 놈을 ‘련(鰵)’이다. 연어는 과거 한자로 ‘연어(年魚)·연어(鰵魚)·연어(連魚)’라고 적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연어(年魚)가 토산에 들어 있는 지방이 함경도에 많고, 강원도와 경상도에도 몇 지방이 있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연어(鰵魚)’라고 쓰여 있고 그 산지가 『세종실록』 지리지보다 많게 되어 있다. 또 허균(許筠)의 『성소부부고』에서는 “연어(鰵魚)는 동해에 있는데 알것은 좋은 안주이다.”라고 하였고, 『난호어목지』에는 ‘연어’를 ‘연어(年魚)’라 하고 그 속명을 ‘연어(鰵魚)’라 하였다. 연어에 대하여 “동

11) 한복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음식 백가지』, 현암사, 2011.

12) 정약전·이청 지음, 정명현 옮김, 『자산어보』, 서해문집, 2016.

1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해에 일종의 물고기가 있는데 큰 것은 길이가 두서너 자이고 비늘은 가늘며, 청색 바탕에 육색(肉色)은 담적색이다.”라고 하였다.<sup>15)</sup> 『전어지』에서는 ‘계어(季魚)’라고 나온다.

(9) 황석어(鱖): 『자류주석』 ‘鱖’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似鰻而小, 名黃花魚, 首亦有石’라고 하여 ‘조기(鰻)’와 비슷하나 작고, 일명 ‘황화어(黃花魚)’라고 하는데 이마에 돌이 박힌 어류이다. 『재물보』에는 ‘황화어’를 ‘석수어(石首魚)·석두어(石頭魚)’로 부르기도 한다고 했다. 그리고 『자산어보』에서 ‘석수어’를 ‘준수어(蹲水魚)’라고 기록하고 그 속명을 ‘조기(曹機)’라고 했고, ‘건석수어(乾石首魚)’를 ‘상(鰲)’ 또는 ‘백상(白鰲)’이라고 소개했다. 또 석수어 가운데 작은 녀석은 ‘준수(蹲水)’ 또는 ‘춘수(春水)’로, 황석어(黃石魚)는 ‘황영(黃靈)’ 또는 ‘황화어’ 등으로도 부른다고도 했다. 1789년에 이의봉(李義鳳)이 편찬한 『고금석림(古今釋林)』에는 ‘석수어’의 속명이 ‘조기(助氣)’인데 이는 사람의 기(氣)를 도우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난호어목지』에서 ‘석수어’를 한글로 ‘조기’라고 썼다. 조기는 민어과에 속하는 바닷물고기를 아우르는 이름인데 여러 어족(魚族)을 합하여 부르는 보통어명(普通魚名)인 것이다. 조기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마에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의 돌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송남잡지』에 따르면 이로 인해 ‘석수어’란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석수어’라는 이름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꽤 오래전에 생겼던 것 같다. 또 명나라 이시진(李時珍)이 편찬한 『본초강목』에도 ‘석수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 명나라에서도 똑같은 이름으로 동일하게 불렀던 것 같다.<sup>16)</sup>

(10) 청어(鯖): 『자류주석』 ‘鯖’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青色, 有枕骨’라고 하여 청색이고 침골이 있는 어류이다. 청어(鯖魚)의 대표적인 이칭은 ‘비웃’으로 1527년에 편찬된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청(鯖)’자를 풀이하여 “비웃청, 속칭 청어(鯖魚)”라고 나오는데 ‘비웃’이라는 명칭이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문기의 『한국어도보(韓國魚圖譜)』에는 다음과 같은 이칭이 기록되어 있다. “동해안에서는 ‘동어(東魚)’, 서울·경기·강원도에서는 ‘비웃(肥儒:가난한 선비를 살찌게 한다는 뜻)·구구대(크고 알을 가진 것)’, 전남 순천에서는 ‘고심청어’, 경북 포항에서는 ‘푸주치·눈검쟁이’, 경상도지방에서는 ‘과미기·과목이(그대로 말린 청어)·과목숙국이’, 울산에서는 ‘갈청어·울산치’”라고 불린다. 그리고 『자산어보』에서는 “청어는 정월에 입포(入浦)하여 해안을 따라 회유하면서 산란하는데 무수한 청어가 떼를 지어 군래하면 바다를 뒤덮는다.”라고 하였다.<sup>17)</sup>

(11) 부어(鰓/鰓/鰓): 『자류주석』 ‘鰓/鰓/鰓’의 한문 주석에서 모두 ‘붕어’를 지칭한다. 붕어는 ‘부어(鰓魚)·즉어(鰓魚)’라고도 한다. 입가에 수염이 없는 것이 잉어와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1469년에 편찬된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에 의하면 어랑에서 산출되는 어류에 부어가 들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토산조에는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도에서 즉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에도 즉어가 실려 있는데 큰 것은 길이가 한 자 남짓한 것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붕어는 조선 초기에 이미 은어(銀口魚)와 함께 중요한 담수어 자원이 되어 있었다.

1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6)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7) 정약전·이청 지음, 정명현 옮김, 『자산어보』, 서해문집, 2016.

『성소부부고』에는 죽어에 대하여, 팔방에 모두 있는데 강릉부 경포는 해파가 통하므로 맛이 가장 좋고 토기(土氣)가 없다고 하였다. 또 『동의보감』에서는 죽어는 일명 ‘부어’인데 여러 물고기 중에서 가장 먹을 만하다고 찬미하였다. 그리고 『난호어목지』에는 ‘부(鮒)’를 한글로 ‘붕어’라 하고, 이를 설명하는 가운데 그 맛에 대하여, 강천에 사는 것은 빛깔이 금처럼 누렇고 맛이 좋으며 지택에 사는 것은 검고 맛이 좋지 못하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8)</sup>

(12) 위어(鰱/魮/鰱/鰱): 『자류주석』 ‘鰱/魮/鰱/鰱’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刀魚, 頭長狹薄如刀. 又名鰱魚, 又鰱魚. 今鰱魚’라고 하여 몸은 가늘고 길며 납작하여 칼 모양처럼 생겼다. 일명 ‘조어(鰱魚)’, ‘제어(鰱魚)’라 하는데 오늘날의 ‘제어(鰱魚)’를 말하는 어류이다. 『난호어목지』에는 『본초강목』에 보이는 이름을 빌려 ‘제어(鰱魚)’라 하고, 한글로 ‘위어’라 하였으며, 그 속명을 ‘위어(葦魚)’라 하였다. 위어(葦魚)의 ‘위(葦)’는 갈대 사이에서 산란하는 습성이 있어 이름에 갈대 ‘위’자가 붙었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송남잡지』에는 “위어는 행주(幸州)에서만 나므로 지금 사옹원(司饗院)이 진상한다.”고 하였는데 조선시대에는 위어를 잡아 진상하던 ‘위어소(葦魚所)’라는 곳이 한강하류의 고양에 있었다.<sup>19)</sup> 또 『자산어보』에는 ‘위어’를 ‘웅어’로 소개하고 있는데 ‘도어(魮魚)’라 하고, 속명을 ‘위어’라 하였으며, 빛깔이 희고 맛이 좋아 회의 상품이라 하였다.<sup>20)</sup>

(13) 언어(鰮): 『자류주석』 ‘鰮’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身圓, 額白, 好偃腹著地.’라고 하여 몸이 둥글고 이마가 평평하며 배로 누워 땅바닥에 다니는 어류이다. 『성호사설(星湖僊說)』에서는 ‘메기’를 ‘제(鰮)’라 하고, 일명 ‘점(鮎)’, 일명 ‘언(鰮)’이라 한다고 하였다. ‘제잠(鰮岑)’은 우리나라의 별칭이다. 그리고 『난호어목지』에서는 ‘점(鮎)’이라 하고, 몸이 점활(黏滑)하므로 이를 ‘점’이라 한다고 하였고, 또 이마가 평평하므로 ‘이(鰮)’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메기의 큰 것을 ‘제(鰮)’라 한다고 하였다. 『송남잡지』에서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고려가 멸망할 때에 영남에서 처음으로 났으므로 이를 ‘멸려치(滅麗鰮)’라 한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말기에 편찬된 읍지들의 토산조에는 메기가 ‘점어(鮎魚)’ 또는 ‘언어(鰮魚)’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sup>21)</sup>

(14) 민어(鰻): 『자류주석』 ‘鰻’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石首魚’라고 하여 (9)황석어(鰻)와 같은 종류의 조기로 생각할 수 있으나 민어(鰻) 생김새가 조기와 유사하나 다른 종류의 물고기이다. ‘면어(鰻魚)’는 ‘민어(鰻魚)’라고도 한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산조에는 ‘민어(民魚)’라는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경기도와 충청도의 여러 곳에서 잡혔고, 전라도·황해도 및 평안도에서도 잡혔던 것으로 되어 있다. 영조 때 편찬된 여러 읍지(邑誌)에도 전라도·충청도·황해도 및 평안도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22)</sup> 그리고 『자산어보』에는 ‘민어’를 ‘면어(鰻魚)’라고 하고 그 속명을 ‘민어(民魚)’라고 하였으며, 민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큰 것은 길이가 4, 5자이다. 몸은 약간 둥글며 빛깔은 황백색이고 등은 청흑색이다. 비늘이 크고 입이 크다. 맛은 담담하고 좋다. 날 것이나 익힌 것이나 모두

1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 정약전·이청 지음, 정명현 옮김, 『자산어보』, 서해문집, 2016.

2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좋고 말린 것은 더욱 몸에 좋다. 부레로는 아교를 만든다. 어린 새끼를 속칭 ‘암치어(巖峙魚)’라고 한다. 또, 1종이 있는데 속칭 ‘부세(富世)’라 하며 길이가 2자 남짓할 정도에 불과하다.”<sup>23)</sup> 이를 통하여 민어가 옛날부터 유용한 물고기로 취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난호어목지』에는 ‘민어’를 한자로 ‘민어(鰻魚)’라고 쓰고, 서·남해에서 나며 동해에는 없고 모양이 조기(石首魚)와 유사하나 그 크기가 4, 5배에 달한다고 하였다.<sup>24)</sup>

(15) 비암장어(鰻/鱺): 『자류주석』 ‘鰻/鱺’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鰻鱺, 似鰻而腹大. 又曰: 鰻魚’라고 하여 ‘鰻/鱺’ ‘鰻魚’라고 하는 뱀장어이다. 뱀장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는 그 형태가 몸이 둥글고 길어서 다른 어류들과 쉽게 구별된다. 『자산어보』에서도 ‘뱀장어’를 ‘해만리(海鰻鱺)’, 속명은 ‘장어’라 기록하고 이의 효능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큰 놈은 길이가 십여 자, 모양은 뱀과 같으나 짧고 거무스름하다. 대체로 물고기는 물에서 나오면 달리지 못하나 이 물고기만은 곧잘 달린다. 맛이 달콤하여 사람에게 이롭다. 오랫동안 설사를 하는 사람은 이 고기로 죽을 끓여 먹으면 이내 낫는다.”라고 되어 있다.<sup>25)</sup>

(16) 비목어(鰈/鰈/鰈/鰈): 『자류주석』 ‘鰈/鰈/鰈/鰈’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比目魚, 狀似牛, 脾紫黑, 一目兩片相得乃得行. 又呼王餘魚, 出東方樂浪. 按: 東方謂鰈域, 而今北路有魚俗呼가자미, 兩目相比而近, 故俗稱比目魚, 遂謂鰈魚. 然比目魚本是一目兩得乃行, 則此有不全.’라고 하여 ‘가자미’를 묘사하고 있다. 가자미는 한자어로는 ‘비목어(比目魚)·접(接)·혜저어(鞋底魚)·판어(版魚)·검(鰈)·좌개(左介)’ 등으로 불렸다. 『지봉유설』이나 다른 문헌에서 광어(廣魚: 지금의 넙치)나 설어(舌魚: 지금의 서대)는 모두 ‘접류(鰈類)’라 하였는데, 가자미를 넓은 의미로 쓴 것이 확실하다. 우리말로는 ‘비목어’를 ‘가잠이·가자미’ 등으로 썼고, 가자미의 방언으로 ‘가재미·까재미·가지마·납새미’ 등이 있다. 그리고 『자산어보』에서 가자미류에 대한 상세한 고증과 실지관찰로 “이시진은……비목어는 각각 눈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나란히 합쳐져야 전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sup>26)</sup> 또 『지봉유설』에 “비목어는 동해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접역(鰈域)이라 한다” 하고 『우해이어보』에도 “『주서(周書)』에서 말하기를 비목어가 동해에 나는데 그 이름이 ‘검’이다. 옛 선비들이 ‘검’을 ‘접’이라 하였는데 지금 보니 그 종류가 매우 많다”라 하였다. 『전어지』에 “가자미는 동해에 나며 서남해에도 있는데, 이것은 동해에 많이 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한 것으로 보아 가자미는 예전에도 동해에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sup>27)</sup>

(17) 전어(鱶): 『자류주석』 ‘鱶’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口在頷下, 甲無鱗, 肉黃, 呼黃魚.’라고 하여 턱밑에 입이 있고, 껍질에는 비늘이 없으며 몸의 빛깔이 황색이라 ‘황어(黃魚)’라고 불리는 어류이다. 『난호어목지』에는 ‘황어(黃魚)’를 한글로 ‘황어’라 하고, 그 모양이 잉어를 많이 닮았고 크기도 역시 그러한데 비늘의 빛깔이 순황색이어서 이름이 ‘황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을 보면 ‘건황어(乾黃魚)·황어자(黃魚鮓)’ 등이 보인다.<sup>28)</sup>

23) 정약전·이칭 지음, 정명현 옮김, 『자산어보』, 서해문집, 2016.

2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5) 정약전·이칭 지음, 정명현 옮김, 『자산어보』, 서해문집, 2016.

26) 정약전·이칭 지음, 정명현 옮김, 『자산어보』, 서해문집, 2016.

2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8) 황어(鰮): 『자류주석』 ‘鰮’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鰮也.’라고 하여 (16)전어(鱒)와 비슷한 물고기이다. 황어(鰮魚)는 우리말 ‘호랭이 상어’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 표현 역시 물고기의 몸 빛깔이 황색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9) 유어(鮪): 『자류주석』 ‘鮪’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似鱒而青, 黑頭, 尖鰭也. 大者王鮪, 小者鮪鮪.’라고 하여 (16)전어(鱒)와 비슷하나 몸의 빛깔이 청색을 띠고 있고, 머리 부분이 검으며 큰 놈은 ‘왕유(王鮪)’이고, 작은 놈은 ‘숙유(鮪鮪)’이다. ‘유(鮪)’는 흔히 ‘다랭이’ 또는 ‘참치’라고도 한다. 참다랑어의 별칭인 참치 이름은 1957년 6월 29일 첫 항해에 나선 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어선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참다랑어 10여 톤을 잡아 부산항으로 들여왔다. 이때 크기나 맛 등 여러 면에서 바다에 사는 물고기 중 으뜸이라 할 만한 이 물고기를 다른 어류와 구별지어야 했다. 그래서 참다랑어의 일본식 이름인 마구로(真黒)의 ‘진(眞)’ 대신에 비슷한 뜻의 우리말 ‘참’을 쓰고 그 뒤에 어류를 뜻하는 ‘치’를 붙였다는 것이다. 마구로는 참다랑어가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띠고 있어 붙은 일본식 이름이다. 동원수산의 참치 홍보관 자료에 부산항에 내려진 참다랑어를 두고 참치라 부를 것인지 진치라 부를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참치의 유래는 일본식 이름인 마구로에서 왔다는 설이 높다. 참치는 원래 다랑어류 중 참다랑어를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다랑어류와 새치류를 포함하는 통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20) 궁어(魷): 『자류주석』 ‘魷’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魷也.’라고 하여 ‘참다랑어’를 가리킨다. 농어목 고등어과의 바닷물고기로 크기가 매우 크며 살이 붉은 색을 띤다. 다랑어류 중 가장 맛이 좋은 최고급 어종에 속한다.

(21) 심어(鰩): 『자류주석』 ‘鰩’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長鼻魚, 口在額下, 大者七八尺.’라고 하여 ‘장비어(長鼻魚)’로 입이 턱 밑에 있는 것으로 7·8척되는 아주 큰 물고기를 가리킨다. ‘심(鰩)’은 ‘홍어’를 지칭하는데, 한자어로는 ‘홍어(洪魚)·홍어(魷魚)’ 등으로 표기하였다. 가오리와 비슷하나 더 둥글고 가로 퍼졌다.

(22) 루어(鰻): 『자류주석』 ‘鰻’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大青魚, 一名鯉, 一名鰻’라고 하여 ‘루(鰻)’는 ‘대청어(大青魚)’라 하는데, ‘리(鯉)’, ‘검(鰻)’이라고도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영일현 산천조의 주진(注津)에 관한 기록을 보면 “세간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매년 겨울에 청어가 반드시 먼저 여기에서 산출되는데 진현한 뒤에 제읍에서 이를 잡기 시작하며 그 산출의 다소에 의하여 다음 해의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에는 이순신 휘하의 수군이 청어를 많이 잡았다. 일례로서 『난중일기』에 의하면 1595년 12월 4일의 일기에 “황득중(黃得中)·오수(吳水) 등이 청어 7천여 급을 싣고 오므로 김희방(金希邦)의 곡식 사러 가는 배에 세어 주었다.”는 구절이 있다. 청어를 잡아 군량미와 바꾸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 『성소부부고』에 의하면 “청어는 4종이 있다. 북도산(北道産)은 크고 속이 희다. 경상도산은 껍질은 검고 속은 붉다. 전라도산은 조금 작으며 해주에서 잡은 것은 2월에 맛이 극히 좋다.”고 하여 산지에 따라 청어가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29)</sup>

(23) 전어(鱒): 『자류주석』 ‘鱒’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魚之美者大者. 又黑水鱒, 如鮒, 鰻

2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尾.’라고 하여 “어류 중 큰 놈을 ‘鱈’이라고 하는데, 흑수라는 강에 살고 ‘부(鮒)’와 유사한 물고기로 온몸에 멧돼지 새끼와 같은 털이 나 있는 어류이다.

(24) 황상어(鰐): 『자류주석』 ‘鰐’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黃鰐魚, 鰐骨黃, 名黃鰐魚.’라고 하여 ‘황상어(黃鰐魚)’를 말하는데 뺨이 황색이고, ‘황협어(黃鰐魚)’라고도 하는 어류이다. ‘상(鰐)’은 『동의보감』에는 ‘황상어(黃鰐魚)’, 『난호어목지』와 『전어지』에서는 ‘자가사리’로 기록되어 있다. 메기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메기보다 몸이 작고 몸 색깔과 지느러미 모양, 입수염 개수 등이 서로 다르다. 황상어는 전체적으로 몸이 길고 머리가 위아래로 납작한 편이며 몸 뒤편으로 갈수록 옆으로 납작해진다. 주둥이가 뾰족하고 납작하며 위턱이 아래턱에 비해 길다. 입은 옆으로 찢어져 있고 입 주위에 4쌍의 수염이 있다. 꼬리지느러미가 깊게 갈라지며 가슴지느러미에는 톱니가 달린 강한 가시가 있다. 몸 옆에 짙은 갈색 빛을 띠는 3개의 큰 직사각형 모양의 무늬가 지나간다. 물 흐름이 느린 큰 강의 중·하류나 호수의 모래, 진흙 바닥 근처에서 살며, 낮에는 돌 틈 사이에 숨어 있다가 주로 밤에 먹이를 찾아 활동하는 야행성이다. 물속에 사는 곤충이나 갑각류, 어린 물고기나 물고기 알을 먹고 산다.<sup>30)</sup>

(25) 작어(鰐): 『자류주석』 ‘鰐’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鰐魚皮, 即鰐魚皮.’라고 하여 ‘鰐魚’, ‘鰐魚’라고 칭하는 어류다. ‘작어(鰐魚)’는 ‘상어’를 가리키는데 상어목에 속하는 어류의 총칭이다. 옛 문헌에 따르면 상어류는 한자어로는 보통 ‘사어(鯊魚)’ 또는 ‘사(鯊, 魴)’가 쓰였고, ‘사어(沙魚)’나 ‘교어(鰐魚)’도 쓰였다. ‘작어(鰐魚)·복어(鰐魚)·치어(溜魚)·정액(挺額)·하백(河伯)·건아(健兒)’ 등의 별명도 있었다. 오늘날 ‘상어’가 표준어이고, 방언에 ‘사애·사어·상에’ 등이 있다. 『재물보』에는 ‘교어(鰐魚)’를 “눈은 푸르고 뺨은 붉으며, 등 위에는 갈기가 있고 배 아래에는 날개가 있으며, 꼬리의 길이는 수 척이 되고, 피부는 모두 진주와 같은 모래를 가지며 얼룩지다.”라 기재하였다. 그리고 『물명고』에는 교어에 관하여 종류에 출입사(出入沙)를 첨가하였을 뿐 『재물보』와 똑같이 기록하였다.<sup>31)</sup>

(26) 절어(鰐): 『자류주석』 ‘鰐’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鰐鼠所化.’라고 하여 분서(鰐鼠)같은 동물이 물고기가 된 것인데, 한문 주석만으로는 어떤 어류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난호어목지』에서 ‘절(鰐)’은 강어에 속하는 ‘납작어’라 하였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납자루’라 하여 잉엇과의 민물고기로 몸의 길이는 5~9cm이며 푸른 갈색이고 무늬가 없는데, 민물조개 속에 알을 낳으며 식용 가치는 적은 물고기로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절(鰐)’은 ‘절어(鰐魚)’로 민물에 사는 몸이 납작하고 오렌지색의 물고기를 가리키는데, ‘납자루’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27) 백어(鰐): 『자류주석』 ‘鰐’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鰐也.’라고 하여 ‘백어’를 말한다. 일명 ‘조어(條魚)·면조어(麵條魚)’라고도 하는데 백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이다. 한자로는 ‘백어(白魚)’라 한다.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각지 토산에 보이는 백어는 이 백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송남잡지』에는 ‘백어’를 ‘멸조어(멸鰐魚)·회잔(鰐殘)·왕여어(王餘魚)’의 종류라 하고 세상에서 전하기를 백어는 왕기(王氣)가 있는 곳에 나므로 한강·백마강에만 백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난호어목지』에는 ‘빙어(氷魚)’를 한글로 ‘백어’

3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라고 하였는데 “길이는 겨우 수촌이고 비늘이 없으며 전신이 희고 밝은데 다만 두 눈의 검은 점은 알아볼 수 있다. 그것이 오는 것은 반드시 동지 전후인데 얼음을 뚫고 그물을 던져 잡는다. 입춘 이후에는 빗갈이 점차 푸르게 되고 점차 드물게 나며 얼음이 녹으면 볼 수 없으므로 이름이 빙어(氷魚)이다.”라고 하였다.<sup>32)</sup>

(28) 첩어(鯪): 『자류주석』 ‘鯪’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妾魚, 其行以三爲率, 一前二後若婢妾.’라고 하여 ‘첩어(妾魚)’인데, 물에서 헤엄쳐 다닐 때 세 마리씩 함께 다니는데 하나는 앞 세우고 둘은 뒤세워 다녀서 ‘비첩(婢妾)’이라고 하였다. 『설문해자』에 보면 ‘첩(鯪)’은 물고기 이름인데 낙랑번국에서 난다고 했다. 그리고 『정자통』을 살펴보니 ‘鯪’은 곧 ‘妾魚’인데, 다닐 때 세 마리씩 다닌다. 하나는 앞서고 둘은 뒤따르니 마치 종이나 첩 같다. 그래서 ‘鯪’은 ‘꺄추(鰍鰒, 납자루, 방피라고도 부른다.)’라 한다고 했다. 곽박(郭璞)이 『이아(爾雅)』를 해석하면서 울보(鰍鰒, 납자루)·꺄추(鰍鰒)는 작은 물고기인데, ‘부(鮒)’의 새끼와 비슷하면서 겹다. 세 간에서 ‘어비(魚婢)’라 부르고, 강동에서는 ‘첩어(妾魚)’라 부른다 했다. 또 『본초강목』에서는 이것을 ‘절(鰍)’의 종류라 했다. 『집운』에 이르길 ‘첩(鯪)’ 혹은 ‘첩(鰍)’이라고도 한다.<sup>33)</sup> 또 이르길 ‘첩(鰍)’은 발음이 ‘첩(妾)’이고, ‘첩(鰍)’과 같은 물고기 이름이다. ‘첩(鯪, 납자루)’을 ‘절(鰍, 붕어)’이라고 하고, ‘사(魷, 상어)’를 ‘취사(吹沙, 모래무지)’라 하는 사람은 모두 그 글자가 분별되기를 기다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첩(鯪)은 ‘납자루’를 뜻하는 한자이다. 아마 여러 마리가 어울려 다니는 납자루를 보고 붙인 이름인데, 몸이 납작한 작은 물고기를 가리킨다. 나중에 발음이 비슷한 글자인 첩(鰍)과 헷갈려 넘치라는 뜻도 붙은 듯하다.

(29) 제어(鰐): 『자류주석』 ‘鰐’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美味在額, 可爲醬.’라고 하여 맛있는 부분은 머리 부분으로 젓갈을 담을 수 있는 어류이다. 네이버사전을 찾아보면 ‘전어(錢魚: 청어과의 바닷물고기)’라고 나오지만 1926년 10월 20일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지난 십일일에 동리암 취라도(吹羅島) 부근에서 어망을 치고 고기를 잡는 중 뜻밖에 암치(鰐)떼가 몰리여 약 육 백 두 가량을 잡았다’라는 문구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제(鰐)’는 ‘암치’를 가리킨다. 암치는 배를 갈라 소금에 절여 말린 ‘암민어’ 또는 그렇게 만든 민어의 총칭을 말한다.

(30) 병어(鯧): 『자류주석』 ‘鯧’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似鰕, 身圓肉厚, 止一脊骨, 烹可食.’라고 하여 방어와 유사한데 몸이 둥글고 살이 두꺼우며 척골이 하나로 이어져 부드러워 맛이 좋은 어류이다. 『자산어보』에도 ‘편어(扁魚) 속명 병어(瓶魚)’라는 것이 실려 있는데, 등과 배가 볼썽 나와 그 모양이 사방으로 뽕죽하고, 길이와 높이가 거의 같고 입이 극히 작다고 묘사하고 있다. 또 그 맛이 좋고 뼈가 연하여 회·구이·국에 좋다고 하였다.<sup>34)</sup> 그리고 『난호어목지』에는 이를 ‘창(鯧)’이라 하고, 서·남해에서 나는데 그것이 지금의 ‘병어’라고 하며, 호서의 도리해(桃里海)에서 많이 난다고 하였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산조에는 경기도와 전라도 몇몇 지방의 토산물로 ‘병어(兵魚)’가 실려 있다.<sup>35)</sup> 따라서 수 백 년 전부터 병어를 어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3) 《說文》魚名. 出樂浪潘國. 《正字通》即妾魚, 其行以三爲率, 一前二後若婢妾. 《集韻》或作鰍.

34) 정약전·이청 지음, 정명현 옮김, 『자산어보』, 서해문집, 2016.

3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1) 홍어(鱻): 『자류주석』 ‘鱻’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形如大荷葉, 口在腹下, 目在額上, 尾長有節, 螫人.’라고 하여 생김새가 큰 연잎처럼 생겼고, 입은 배 쪽에 있고, 눈은 이마 위에 있으며 꼬리는 길며 마디가 있는데 사람을 쏘기도 하는 ‘가오리’를 묘사하고 있다. 가오리는 한자어로는 ‘분어(擘魚)·가불어(加不魚)·가울어(加兀魚)·가화어(加火魚)’ 등으로 표기한다. 『본초강목』에는 ‘홍어’를 ‘태양어(郃陽魚)·하어(荷魚)·분어(鱻魚)’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동의보감』에는 ‘공어(逕魚)’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자산어보』에는 ‘노랑가오리’를 ‘황분(黃鱻)’, ‘홍어’를 ‘분어(鱻魚)’라고도 하며, ‘분어’는 모든 가오리 무리를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성호사설』에는 ‘전분(渣擘)’을 가울어라 하고 “공(逕)과 서로 비슷하지만 맛이 이것만 못하고 꼬리 끝에 독기가 심한 가시가 있어 사람을 쏘며 그 꼬리를 잘라 나무뿌리에 꽂아두면 시들지 않는 나무가 없다.”라고 하였다. 또 『임원십육지』에는 ‘해요어(海碧魚)’를 한글로 ‘가오리’라 하고 ‘홍어(洪魚)’를 한글로 ‘무림생선’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동의보감』에는 ‘공어’를 한글로는 ‘가오리’라고 표기하고 먹으면 유익한데 꼬리에는 대독(毒)이 있다고 하였다.<sup>36)</sup>

## 2) ‘-치’계

어류의 명칭은 단일어와 파생어, 합성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류주석』에서는 후행 구성요서가 결합된 명칭이 많았다. 그 중 ‘-치’계로 이루어지는 어류의 명칭은 ‘준치(鰯)’ 하나 밖에 없다.

(1) 준치(鰯): 『자류주석』 ‘鰯’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美魚, 似魴, 多鰓.’라고 하여 ‘미어(美魚)’인데 방어와 비슷하나 가시가 많은 어류이다. 『자산어보』에는 ‘준치’를 ‘시어’라 하고, 그 속명을 ‘준치어(鰯峙魚)’라고 하였다. 그리고 준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크기는 2, 3자이고, 몸은 좁고 높다. 비늘이 크고 가시가 많으며, 등은 푸르다. 맛이 좋고 산뜻하다. 곡우가 지난 뒤에 우이도에서 잡히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점차 북상하여 6월 중에 해서에 이르기 시작한다. 어부는 이를 쫓아 잡는데 늦은 것은 이른 것만 못하다. 작은 것은 크기가 3, 4치이며 맛이 매우 박하다.”<sup>37)</sup> 준치는 맛이 있는 물고기이기는 하나 살에 가시가 많은 것이 흠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난호어목지』에는 ‘준치’를 ‘시(鰯)’라 하고 한글로 ‘준치’라고 기재하고 있고, 그것이 내유하는 시기가 있어 항상 4, 5월에 내유하므로 ‘시(時)’자를 따서 이름을 붙인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통속적으로 이르는 ‘진어’가 그것이라고 하였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경기도·평안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여러 지방에서 진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준치는 조선시대 초기에 이미 많이 어획되고 있었던 것이다.<sup>38)</sup>

## 3) 기타

36)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7) 정약전·이칭 지음, 정명현 옮김, 『자산어보』, 서해문집, 2016.

3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어류 명칭에서 쓰이는 후행 구성요소인 ‘-어’와 ‘-치’ 이외의 것이 결합된 어류 명칭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1) 조기(鰲): 『자류주석』 ‘鰲’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頭中有石, 名石首魚.’라고 하여 머리에 돌이 있는 ‘석수어(石首魚)’라고 부르는 어류이다. 『훈몽자회』에는 ‘중(鰲)자’를 ‘조기 중’이라 하고, ‘석수어(石首魚)’라고도 하였다. 『송남잡지』에 의하면 머리에 돌이 있으므로 ‘석수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조기라는 이름에 대하여 『화음방언자의해(華音方言字義解)』에는 우리말 석수어는 곧 중국어의 ‘중어(鰲魚)’인데, ‘중어’라는 음이 급하게 발음되어 ‘조기’로 변하였다고 하고, 『송남잡지』에서도 ‘중’의 음이 ‘조기’로 변하였다고 한다. 『고금석림』에는 석수어의 속명이 ‘조기(助氣)’인데 이는 사람의 기(氣)를 도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기를 ‘천지어(天知魚)’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조기를 말려 굴비를 만들 때 항상 옥상에서 말리나, 접동새나 고양이가 감히 이를 취하여 먹을 수가 없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sup>39)</sup> 『자산어보』에는 석수어에 속하는 어류로서 ‘대면(大鰲), 속명 애우질(艾羽叱), ‘면어(鰲魚), 속명 민어(民魚), ‘추수어(蝟水魚), 속명 조기(曹機)’를 들고, 추수어 중 조금 큰 것을 ‘보구치(甫九峙), 조금 작은 것을 ‘반애(盤厓), 가장 작은 것을 ‘황석어(黃石魚)’라고 하였다.<sup>40)</sup> 그리고 『난호어목지』에는 ‘석수어’를 한글로 ‘조기’라 하고 몸이 평편하고 비늘이 잘고 등은 담흑색이며, 몸 전체는 황백색이라고 하였는데 ‘참조기’를 말한 것이다.

(2) 복싱선(鮐/鮓/鰩/鮓/鮓/鮓): 『자류주석』 ‘鮐/鮓/鰩/鮓/鮓/鮓’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河鮐, 又河豚, 狀如蝌蚪, 無鱗腮, 大者尺餘, 目能睇者, 目出有毒. 又名鰩鰩, 鮓鰩, 健魚. 又名噴魚. 一曰鰩鰩魚.’라고 하여 ‘하돈(河鮐)’으로 일명 ‘하돈(河豚)’이라고 하는데, 생김새가 올챙이 같고, 몸 표면이 매끄러운 것과 가시 모양의 비늘이 덮인 것이 있으며 큰 놈은 몇 척 정도로 크고 독이 있다. 달리 ‘후이(鰩鰩), ‘호이(鮓鰩), ‘규어(健魚), ‘진어(噴魚), ‘후이어(鰩鰩魚)’라고 불리는 ‘복(복어)’을 말한다. 이처럼 그 종류가 많아서 복을 지칭하는 어명도 많다. 참복과에 속하는 복류만 하더라도 자주복·까칠복·검복·줄복·까치복·복섬·매리복·바실복·황복·흰점복·눈불개복·밀복·꺼끌복·별복·흰복·청복 등이 있다. 특히 황복은 ‘하돈(河豚)’이라 부르는 데, 하돈은 진달래가 만개할 무렵에 산란을 하기 위하여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온다. 하돈(河豚)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복이다. 『향약집성방』에는 복을 ‘하돈(河鮐)’이라 하고 향명을 ‘복지(伏只)’라 하였다. 『우해이어보』에는 복에 속하는 어류로서 ‘석하돈(石河鮐)·작복중(鵲鰩)·나하돈(癩河鮐)·황사복중(黃沙鰩)’의 4종이 실려 있다.<sup>41)</sup> 그리고 『자산어보』에는 ‘돈어(鮐魚), 속명 복전어(服全魚)’에 속하는 어류로서 ‘검돈(黔鮐), 속명 검복(黔服), ‘작돈(鵲鮐) 속명, 가치복(加齒服), ‘활돈(滑鮐), 속명 밀복(蜜服), ‘삼돈(澁鮐), 속명 가칠복(加七服), ‘소돈(小鮐), 속명 줄복(拙服), ‘위돈(蝟鮐), 백돈(白鮐)’을 들고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3) 쏘가리(鰐): 『자류주석』 ‘鰐’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大口, 細鱗, 斑采, 一名水豚. 又婢魚.’라고 하여 이 물고기는 입이 크고 몸은 작은 비늘로 덮여 있으며 얼룩무늬가 있는 것으

3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40) 정약전·이칭 지음, 정명현 옮김, 『자산어보』, 서해문집, 2016.

4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로 일명 ‘수돈(水豚)’, ‘비어(婢魚)’라고 부르는 어류이다. 한자어로 ‘꺾어(鰈魚)’, ‘금린어(錦鱗魚)’라 하는데, 『재물보』에는 살맛이 돼지고기처럼 좋다하여 ‘수돈(水豚)’이라고도 하였다. 『본초강목』에는 ‘대어(臺魚)’, ‘석계어(石桂魚)’라 하였다. 언뜻 보기에는 바다볼락과 비슷하며, 다른 민물고기와는 생김새가 다르다. 하천 종류의 물이 맑고 바위가 많은 큰 강에서 서식한다.

(4) 썩적이(鱸): 『자류주석』 ‘鱸’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四腮魚, 巨口, 細鱗, 似鰈, 長數寸.’라고 하여 ‘사새어(四腮魚)’인데 입이 크고 몸은 작은 비늘로 덮여 있어 (5) 鰈(쏘가리)와 비슷하지만 길이가 수촌이다. ‘노(鱸)’는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맛있는 물고기로 이름나 ‘송강지로(松江之鱸)’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물명고』에는 ‘노(鱸)’를 한글로 ‘걱정어’라고 적고 있다. 『임원십육지』에는 ‘노’를 ‘거억정’이라고 적고, “노(盧)는 흑(黑)인데 물고기의 빛깔이 검어서 노(盧)자를 따라 노(鱸)라고 한다.”고 하였다. 또 “그 맛이 아주 좋으며, 하늘이 마련해 준 횃감”이라고 하였다.<sup>42)</sup> ‘걱정어’를 ‘노’ 또는 ‘노어’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 ‘농어’를 ‘노어’라고 한 것과 같이 ‘농어’를 ‘노어’라 하였으므로 ‘걱정어’가 아니다.

(5) 모리문어(鰻/鮓): 『자류주석』 ‘鰻/鮓’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吹沙小魚, 又名鮓魚, 黃皮, 黑斑.’라고 하여 ‘취사소어(吹沙小魚)’인데, ‘타어(鮓魚)’라고도 한다. 몸은 황색을 띄고 검은 반점이 있는 어류이다. 강 중·하류의 모래바닥 근처에서 수서곤충이나 작은 동물을 잡아 먹고 살며, 모래 속에 숨는 성향이 있다. 『재물보』에는 사(鰻)는 ‘사어(鰻魚)’, 또 다른 말로 ‘취사어(吹沙魚)’, ‘사온(沙鱸)’, ‘아랑어(阿浪魚)’라고 기록하였다. 『난호어목지』와 『임원경제지』에는 ‘사(鰻)’, 한글로는 ‘모래마자’ 또는 ‘모리모자’로 썼다.<sup>43)</sup> 모래 속에 숨는 성향이 있어서 모래무지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학명에 쓰인 라틴어 ‘gobio’는 바닥에 살고 있는 작은 고기라는 뜻을 담고 있다.

(6) 메리기/오메리기(鮎/鰈/鰻): 『자류주석』 ‘鮎/鰈/鰻’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美魚, 似魴, 多鰭’라고 하여 ‘미어(美魚)’인데 방어와 비슷하나 가시가 많은 어류이다. 『훈몽자회』에서는 ‘점(鮎)자’를 ‘메유기 넘’이라 하고 이를 속칭 ‘점어(鮎魚)’라 한다고 하였다. 『성호사설』에서는 ‘메기’를 ‘제(鰈)’라 하고, 일명 ‘점(鮎)’, 일명 ‘언(鰻)’이라 한다고 하였다. ‘제잠(鰈岑)’은 우리나라의 별칭이다. 그리고 『난호어목지』에서는 ‘점(鮎)’이라 하고, 몸이 점활(黏滑)하므로 이를 ‘점’이라 한다고 하였고, 또 이마가 평평하므로 ‘이(鰻)’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메기의 큰 것을 ‘제(鰈)’라 한다고 하였다. 『송남잡지』에서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고려가 멸망할 때에 영남에서 처음으로 났으므로 이를 ‘멸려치(滅麗魴)’라 한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말기에 편찬된 읍지들의 토산조에는 메기가 ‘점어(鮎魚)’ 또는 ‘언어(鰻魚)’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 『향약집성방』에서는 메기를 ‘이어(鰻魚)’라 하고 그 향명을 ‘미유기(未由弃)’라고 하였다.<sup>44)</sup>

(7) 더구(吳): 『자류주석』 ‘吳’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魚之大口者.’라고 하여 입이 큰 어류이다. 예로부터 ‘입이 큰 물고기’라고 하여 ‘대구어(大口魚)’, 혹은 머리가 커서 ‘대두어(大頭魚)’라고 불렸으며 간혹 ‘화어(沓魚)’로 표기되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4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4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4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여지도서(輿地圖書)』 등에는 ‘대구어’로, 『난호어목지』에는 ‘화어’로 표기된 예가 그것이다. 입이 커서인지 대구는 먹성도 남다르다. 청어 고등어 명태 가자미 상어새끼 오징어 문어 새우 등을 통째로 삼켜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새끼를 잡아먹기도 한다. 이렇게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다 보니 몸집도 크다. 그래서 대구라는 이름은 생김새와 한자 이름을 보면 만든 이유를 금방 떠올릴 수 있다. 대구는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최초로 확인되며, 『경상도속찬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도 기록되어 있다.<sup>45)</sup> 이렇듯 여러 사료에서 대구가 자주 눈에 띄는 것은 조선 초기에 비교적 많이 잡혔기 때문이었다.

(8) 가물티(鰮/鯛/鰩/鮓): 『자류주석』 ‘鰮/鯛/鰩/鮓’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黑鰮, 烏魚, 斑點有七. 大者名鰩, 小者鮓, 作北斗.’라고 하여 몸빛은 검은 빛을 띤 창갈색으로 ‘오어(烏魚)’라 하는데 7개 정도의 흑갈색의 불규칙한 큰 얼룩무늬가 있는데 북두의 형상을 나타내는 어류라 하였다. 큰 놈은 ‘견(鰩)’이고 작은 놈은 ‘탈(鮓)’인 어류이다. 조선 초기에 편찬된 『훈몽자회』에는 ‘례(鰮)’자를 ‘가모티 례’라고 하였고, ‘례(鰮)’라고 쓰기도 하고, 속칭 ‘오어(烏魚)·화두어(火頭魚)’라고도 부른다고 하였다. 『향약집성방』에는 ‘여어(蠡魚)’라 하고 그 향명(鄉名)을 ‘가모치(加母致)’라고 하였다. 영조 때에 편찬된 읍지들의 토산에는 ‘여어’ 또는 ‘예어’라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은 모두 ‘가물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재물보』에는 ‘예어(鰮)’를 한글로 ‘가물치’라 쓰고, 모양이 길고 몸이 둥글고 비늘이 잘고 검은색인데 그 형상이 알뱀다고 하였으며, 그 별명으로서 ‘흔(鮓)·여어(蠡魚)·흑례(黑鰮)·현례(玄鰮)·오례(烏鰮)·동어(鯛魚)·문어(文魚)·화시두어(火柴頭魚)·수염(水厭)·탈(鮓)’ 등을 들었다. 또 『난호어목지』에도 ‘례’를 ‘가물치’라 하고, 이를 설명하여 양볼 뒤에는 모두 7개의 반점을 지니고 있어 북두(北斗)의 형상을 나타내며, 밤이면 반드시 머리를 들어 북극성을 향하므로 자연의 예의가 있다고 하여, ‘예(禮)’자를 따라 ‘예(鰮)’라고 한다고 하였다.<sup>46)</sup>

(9) 드렁허리(鰻): 『자류주석』 ‘鰻’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蛇鰻, 似蛇.’라고 하여 ‘사선(蛇鰻)’으로 형상이 뱀과 비슷하다. 『훈몽자회』에서는 ‘선(鰻)’을 ‘드렁허리’이라 하고 ‘선(鰻)’으로 쓰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해이어보』를 보면 기내(畿內)에서는 ‘웅어(熊魚)’라 하고, 호서·호남에서는 ‘농요어(壟腰魚)’라 한다고 하였다. 또 『향약집성방』에서는 ‘선(鰻)’을 우리말로 ‘동을람허리(冬乙藍虛里)’라 한다고 하였다. 『난호어목지』에서는 이를 설명하기를 “황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고 배는 전체가 황색이므로 ‘황선(黃鰻)’의 이름이 붙었다. 뱀장어와 비슷하며, 길고 뱀을 닮았으나 비늘이 없다. 큰 것은 길이가 2, 3척이다. 겨울에는 숨어 있다가 여름에 나오는 것이 뱀장어와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본초강목』을 인용하여 “드렁허리의 일종은 뱀이 변한 것으로 이름이 사선(蛇鰻)인데 독이 있어 사람을 해친다. 항아리에 물을 담아 이를 넣어두고 밤에 등불을 비추어보면 뱀이 변한 것은 목덜미 밑에 흰점이 있고 몸 전체가 물 위에 떠 있으니 이를 즉시 버린다.”고 하였다. 『유원총보(類苑叢寶)』에는 도랑·개천이나 얕은 물에 사는데, 논두렁에 구멍 뚫기를 좋아하여 물을 새게 하므로 농부의 근심거리가 된다고 하였다. 드렁허리는 그 형태가 뱀과 비슷하여 싫어하였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서는 “드렁허리에는 독이 있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기에 이것을 잡으면 버린다. 이는 그릇된

4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46)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것으로 드렁허리가 뱀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기를 꺼려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퍼뜨린 것이다.”라고 하였다.<sup>47)</sup>

(10) 미끼리(鰮): 『자류주석』 ‘鰮’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泥鰮, 穴於泥中, 有漿, 濡滑.’라고 하여 ‘이추(泥鰮)’인데 진흙에 살고 점액이 있어 미끌미끌하다. 한자어로는 ‘추(鰮)’, ‘추(鰮)’라고 한다. 문헌상으로는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등장한다. 여기에는 영세민이 즐겨 먹는 9종의 수산 동물이 열거되어 있는데 ‘추’도 포함되어 있다. 『동의보감』에는 ‘추어(鰮魚)’라고 하고 한글로 ‘미꾸리’라고 썼으며, 모양이 단소(短小)하고 항상 진흙 속에 있는데 일명 ‘추어(鰮魚)’라고 하며, 또 그 약효는 보중(補中), 지설(止泄)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난호어목지』에는 ‘이추(泥鰮)’라고 하고 한글로 ‘밧구리’라고 쓰고, 이를 설명하여 살은 기름이 많고 살찌고 맛이 있으며 시골사람은 이를 잡아 맑은 물에 넣어두고 진흙을 다 토하기를 기다려 죽을 끓이는데 별미라고 하였다.<sup>48)</sup>

(11) 양교(鰮): 『자류주석』 ‘鰮’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陽鰮, 白魚別名, 肉薄而不美.’라고 하여 ‘양교(陽鰮)’인데 달리 ‘백어(白魚)’라 하고, 살이 얇아 맛이 없다. 『난호어목지』에는 ‘빙어(氷魚)’를 한글로 ‘뽕어’라고 하였는데 “길이는 겨우 수촌이고 비늘이 없으며 전신이 희고 밝은데 다만 두 눈의 검은 점은 알아볼 수 있다. 그것이 오는 것은 반드시 동지 전후인데 얼음을 뚫고 그물을 던져 잡는다. 입춘 이후에는 빗갈이 점차 푸르게 되고 점차 드물게 나며 얼음이 녹으면 볼 수 없으므로 이름이 빙어(氷魚)이다.”라고 하였다.<sup>49)</sup> 즉, (27)뽕어(鰮)와 동일한 물고기다.

(12) 공지(鰮): 『자류주석』 ‘鰮’의 한문 주석을 살펴보면 ‘俗呼針鰮魚.’라고 하여 속명으로 ‘針鰮魚’라고 하는 어류이다. 『자산어보』에서는 ‘학꽂치’를 ‘침어(針魚)’라 하고 속명을 ‘공치어(孔峙魚)’라 하였으며, 그 맛은 달고 산뜻하다고 하였고 『난호어목지』에서도 중국식 명칭인 ‘침어’로 기재하고 한글로는 ‘공지’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늘이 없는 소어(小魚)이다. 큰 것이 불과 두서너 치이다. 몸은 빙어(氷魚)와 같으나 등에 실무늬가 있어 청색과 백색이 서로 교차한다. 주둥이에는 하나의 검은 가시가 있는데 침과 같으므로 『본초강목』에서는 속명을 ‘강태공조침어(姜太公釣針魚)’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속적으로 ‘공지(公持)’라고 부르는데 역시 자구를 생략한 것이다. 이유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는 ‘침어’라 하면서, “입에 바늘이 있는데 몸길이의 반에 가깝고, 밤에 물 위에 떠올라와 놀므로 강촌 사람들이 작은 배를 타고 송진에 불을 밝혀 그물로 잡는다.”고 하였고, 속명이 ‘공지(孔之)’인데 이를 명명하여 ‘침어’라 한다고 하였다. 조선 말기의 평안남도지방 읍지를 보면 물산에 ‘침어(針魚)’라는 것이 보이는데 ‘학꽂치’를 가리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우해이어보』에는 ‘홍시(虹鰮)’가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학꽂치’이다. 이에 의하면 ‘홍시’는 ‘상비어(象鼻魚)’인데 본토박이는 이를 ‘곤치(昆雉)’라고 부른다고 하고, 새부리와 같은 부리가 있음을 설명한 뒤 회를 쳐서 먹으면 아주 좋다고 하였다.<sup>50)</sup>

4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4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4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5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4. 나오기

본고에서는 『자류주석』 어별류에 나타나는 어류 명칭에 대한 한자학적 접근으로 먼저 『자류주석』에 나타나는 다양한 어류를 어떠한 의미 기준으로 분류·수록하였는지 살펴보고, 『자류주석』의 한문 주석을 통해 어류의 종류 및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자류주석』 한문 주석만으로 어류의 종류와 특징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 『우해이어보』·『자산어보』·『난호어목지』 등의 문헌 자료를 참고하여 어류의 속성을 파악하여 각 어류가 지니는 다양한 명칭 및 이름의 어원 등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였다.

『자류주석』 어별류에 나타나는 어종은 ‘슈어’, ‘방어’, ‘련어’, ‘청어’, ‘부어’ 등으로 45종이다. 이 중 ‘鮓’과 ‘鱠’는 ‘빙어’로 같은 어류에 속한다. 이에 『자류주석』에 나타나는 어종은 ‘44’종이다. 이러한 어종의 명칭은 대부분 ‘-어’계의 어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치’계는 ‘준치’로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쏘가리’, ‘씩적이’, ‘모리문이’, ‘더구’, ‘가물티’ 등 기타 어휘 구조도 12개 존재한다.

그리고 『자류주석』 어류 명칭은 ‘鰯’, ‘鰻’, ‘鱖’ 등 한자어 어류 명칭이 많았고, 참조한 문헌에서 한글 또는 다른 한자어로 사용되는 이명(異名), 별명(別名), 속명(俗名) 등의 다양한 어류 명칭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자류주석』에 나타난 어종을 중심으로 각 어류에 대한 명칭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속에 있는 어류 명칭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어류의 명칭을 기록하여 어종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어류(명칭)	명칭어	
	『자류주석』	참고자료
문어(날치)	문어, 飛魚	문요어, 文鰩魚, 文鰩, 날치 등
심어(철갑상어)	심어, 鰻魚	鰻魚, 鰻魚, 총절입, 錦鱗鯊, 鱣魚, 黃魚, 玉版魚, 忽魚 등
리어(잉어)	리어, 鯉魚	니어 등
준어(송어)	준어, 鱒魚, 大魚, 赤目魚	白魚, 강준치, 독너울이 등
슈어(송어)	슈어, 鰩魚	송어, 치, 子魚, 秀魚, 登其里, 毛峙 등
도어(피라미)	도어, 鱗魚, 白鱗	필이미, 小魚, 白條, 鰮魚, 참피리, 飛畢魚, 날피리, 필암이, 畢巖魚 등
방어(방어)	방어, 鰻魚, 魴魚, 白魚	方魚, 魴魚 등
련어(연어)	련어, 鰓魚	年魚, 連魚 등
준치(준치)	준치, 鰓魚, 美魚	시어, 蠶峙魚, 준치, 진어 등
조기(조기)	조기, 鰻魚, 石首魚, 好嗽魚	天知魚, 大鰻, 艾羽叱, 鰻魚, 民魚, 鰻水魚, 曹機, 甫九峙, 盤厓, 黃石魚, 석수어, 참조기 등
황석어(황석어)	황석어, 鰻魚, 黃花魚	石首魚, 石頭魚, 鰻水魚, 曹機, 鰻, 白鰻, 春水魚, 黃靈魚, 황화어, 助氣, 조기 등
청어(과메기)	청어, 鰻魚	비웃, 東魚, 구구대, 고심청어, 푸주치, 눈검쟁

		이, 과미기, 과목이, 과목숙국이, 갈청어, 울산 치 등
부어(붕어)	부어, 鯽魚, 鮒魚	즉어 등
위어(웅어)	위어, 刀魚, 鰮魚, 鰭魚, 鰲鰻, 紫 魚	革魚, 웅어, 魴魚 등
복싱선(복)	복싱선, 복, 河魨, 河豚, 鰐鰓, 鮠 鰓, 健魚, 噴魚, 鰐鰓魚, 江豚	鮎魚 등
쏘가리(쏘가리)	쏘가리, 鰻魚, 水豚, 婢魚	錦鱗魚, 臺魚, 石桂魚 등
색적이(걱정어)	색적어, 四腮魚	걱정어, 거억정 등
모리물이(모래무지)	모리물어, 吹沙小魚, 海鯊, 鮫魚	鯊魚, 吹沙魚, 沙鰻, 阿浪魚, 모래마자, 모리모 자, gobio 등
머여기(메기)	머여기, 오머여기, 鮎魚, 鰓魚, 鰓鰓	메유기, 메기, 鯢岑, 減麗鰻, 鰻魚, 미유기 등
언어(메기류)	언어, 鰻魚	*
민어(민어)	민어, 鰻魚, 石首魚, 鯊魚	鯊魚, 民魚, 巖峙魚, 富世 등
디구(대구)	디구, 吳魚, 吞魚	大口魚, 大頭魚, 대구어, 화어 등
가물티(가물치)	가물티, 烏魚, 강고도리	가모티, 火頭魚, 蠡魚, 加母致, 鰮魚, 鮠, 蠡魚, 黑鰮, 玄鰮, 烏鰮, 鰮魚, 文魚, 火柴頭魚, 水魴, 鰓 등
비암장어(뱀장어)	비암장어, 鰻鱺, 鰻魚	海鰻鱺, 장어 등
드렁허리(드렁허리)	드렁허리, 蛇鰻	熊魚, 壘腰魚, 동을람허리 등
미씨리(미꾸라지)	미씨리, 泥鰌	鰕魚, 미꾸리, 鰌魚, 밋구리 등
비목어(가자미)	비목어, 比目魚, 王餘魚, 鰈域, 가즈미, 鰈魚	接, 鞋底魚, 版魚, 鰈, 左介, 廣魚, 납치, 舌魚, 서대, 가자미, 가잠이, 가자미, 가재미, 까재미, 가지미, 납새미 등
전어(황어)	전어, 黃魚	乾黃魚, 黃魚鮓 등
황어(호랭이상어)	황어, 鯉魚	호랭이 상어 등
유어(참치)	유어, 鮪魚, 王鮪, 鮪鮪	다랭이, 참치, 참다랑어 등
궁어(참다랑어)	궁어, 鰻魚, 鰻鰻	참다랑어 등
심어(홍어)	심어, 鰻魚, 長鼻魚	洪魚, 鰕魚 등
루어(청어)	루어, 鰻魚, 大青魚	청어 등
전어(전어)	전어, 鰻魚	*
황상어(자가사리)	황상어, 黃鰭魚, 黃鰓魚, 揚黃	자가사리 등
작어(상어)	작어, 鰈魚, 鰈魚	상어, 鯊魚, 鯊, 魴, 沙魚, 사애, 사어, 상애 등
절어(절어)	절어, 鰈魚	납자루(정확하지 않음) 등
빅어(빙어)	빅어, 鮠魚, 양고, 陽鰻, 白魚	條魚, 麵條魚, 뱅어, 멸鰈魚, 鰻殘, 王餘魚, 氷 魚, 빙어 등
첩어(납자루)	첩어, 鰈魚, 妾魚	鰻鰓, 납자루, 방피, 鰻鰓, 魚婢 등
제어(암치)	제어, 鰈魚	암치, 암민어 등
병어(병어)	鰈, 병어	扁魚, 瓶魚, 兵魚 등
공지(학꽂치)	공지, 針鰈魚	*



홍어(가오리)	홍어, 鱈魚	가오리, 擘魚, 加不魚, 加兀魚, 加火魚, 가울어, 海碧魚, 洪魚, 무림생선, 逕魚 등
---------	--------	--

이처럼 어류 명칭은 2개, 3개 심지어 ‘鰈’처럼 22개의 이름을 가지듯 다양한 명칭어를 지닌다. 기본적으로 표준어형을 바탕으로 지역에 따른 다양한 방언형이 나타나며, 색깔, 모양, 크기, 맛과 질, 서식지, 습성, 촉감,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명명 어휘가 발달해 있다. 그리고 이 중에는 『표준국어대사전』이나 19세기 어류 총서인 『우해이어보』·『자산어보』·『난호어목지』에 수록되지 않은 어종도 있었으며, 이후 잡지나 신문에 게재된 기사 내용을 통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어종도 있었다. 이처럼 바다 생물어 중 어류 명칭 어휘의 목록체계화 작업은 우리말의 어휘장을 풍부하게 해주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물고기 이름에 대한 연구는 국어 어휘론 분야에 속하는 것인데 한자어 명칭어로 이루어진 어류 명칭어는 물고기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으로 한국의 물고기 이름의 체계를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어류 명칭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파악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명칭어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윤정옥, 「우리나라 물고기 이름이 형태·의미 구조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왕사동, 「한국의 어류 명칭어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정운용, 『자류주석』, 건국대학교출판부, 1971.  
 정문기 역, 『자산어보』, 지식산업사, 1977.  
 최윤등, 『한국의 바닷물고기』, 교학사, 2002.  
 명정구 외, 『우리바다 어류도감』, 다락원, 2002.  
 김 려 저, 박준원 역 『우해이어보』, 다운샘, 2004.  
 서유구 저, 이두순 역, 『평역 난호어명고』, 블루앤노트, 2015.  
 손민호, 『우리바다 해양생물 갯벌에서 심해까지』, 아카데미서적, 2015.  
 정약전·이청 지음, 정명현 옮김, 『자산어보』, 서해문집, 2016.  
 최현섭, 박태성 저 『최초의 물고기 이야기』, 지앤유, 2017.  
 하영삼·곽현숙, 표점교감 『자류주석』, 도서출판3, 2017.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字類註釋, 魚類, 牛海異魚譜, 茲山魚譜, 蘭湖漁牧地		
Key Words	영문	Zileizhushi, Fish, Niuhaiyiyupu, Zishanyupu, Lanhuyumudi		
<div>A Study on the Zileizhushi that appear on the Fish word field</div> <div>Kwak, Hyun-Suk</div> <p>In this book, we first considered the Chinese character of various fish in the Chinese character annotation, and discussed the various kinds of fish in the Chinese character reference line, as a Chinese character approach to fish names appearing in the Zileizhushi fish designation.</p> <p>In addition, if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fish type and characteristics only with the Chinese character annotations, the names of each fish are found and the names of different fish are divided by referring to the literature materials such as Niuhaiyiyupu, Zishanyupu and Lanhuyumudi .</p> <p>The fish species found in the Zileizhushi category are 'gray mullet', 'carp', 'salmon', Most of these fish species are named '-어' family of vocabulary, and the '-치' system is only '준치'. There are also 12 other vocabulary structures including 'a mandarin fish', 'Trachidermus fasciatus' and 'a snakehead'. And the names of the fish of Zileizhushi were many Chinese language names such as “鰻”, “鰻” and “鰻” and the titles of the household names of the animals used as Han-gul or other Chinese characters in the referenced documents, and so on. Basically, the standard language style was used to create different dialect shapes, sizes, flavors and qualities, habitats, textures, touches, and uses, with various vocabulary developments. And some of them were not included in the Standard Language Dictionary or the fish series Niuhaiyiyupu, Zishanyupu or Lanhuyumudi which later appeared in magazines or newspapers. As such, the systematic listing of fish naming words among sea languages will serve as the basis for the enrichment of Korean vocabulary.</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곽현숙 / 郭鉉淑 / Kwak, Hyun-Suk		
	소 속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Em@il	yellow1331@hanmail.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2월 10일	심 사 일	2018년 02월 13일
	수 정 일	2018년 03월 18일	게재확정일	2018년 03월 23일